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7월 18일 학내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신임이사장 법산 스님이 법인기를 이양받아 들어보이고 있다.

“동국발전 대열에 함께 해달라”

동국대, 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 봉행

“오늘 소중한 인연을 잘 성숙시켜 동국발전의 대열에 열렬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7월 18일 학내 본관 중강당에서 제39대 이사장 자광 스님 이임식과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前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월탄스님, 성파 스님(영축총림 방장), 일면 스님, 성우 스님, 법타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6월 제3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광 스님은 지난 3년 간 이사장으로서 학교 안정과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2018년 1월 시작된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로 비롯된 극심한 내홍을 타결로 이끌었고, 올해 2월 관련 노동자 9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는 사회 안팎으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같은 공로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자광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여는 진제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달했다.

자광 스님은 이임사에서 “오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날이다. 관계자 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덕망높고 학문 성과가 훌륭하신 법산 스님께서 제40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 법산 스님은 교수로서 25년간 인재를 양성했고 13년 동안 정각원장을 맡아주는 등 동국대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으로 학교를 공심으로 세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사 이후 자광 스님은 신임 이사장 법산 스님에게 법인기를 이양했다. 법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학교법인 동국대는 모든 구성원이 인드라망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자기 직분에 충실히 실행할 때 세상을 즐겁게 하는 불국정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동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며 민족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나아가 우주법계 생명공동체의 평화라는 인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임명

원행 스님 19일 임명장 수여
“문화재 현안 해결 노력” 당부



조계종 신임 문화부장에 오심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문화부장 오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장, 기획실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문화정책 현안들을 문화재청과 잘 상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신광사, 월봉사 주지를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 가치 알릴 전문가조직 출범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 출 · 재가 16인으로 구성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에 담긴 아름다운 문화가치를 일반대중에 분야별로 전할 출 · 재가 전문가조직이 출범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문화창달위원회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문화창달위는 출가자 5인과 재가자 11인으로 구성됐다. 출가자로는 당연직 위원인 현법 스님(문화부장)과 화쟁위 위원 도법 스님,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문 재가자는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김봉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호석 화백 △로버트 파우저 前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오세경 불교TV 방송작가 △오태수 백제예술대 교수 △유동종 다큐멘터리 전문PD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부실장 △조현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등이다. 임기는 2년.

문화창달위원회는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불교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향 제시를 비롯해 불교문화의 다양성 · 창조성을 제고하는 활동에 나선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패러다임에 맞춘 종단 과제를 도출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불교계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원장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전문 강연의 ‘휴먼 라이브러리’
청년예술가 돕는 아트마켓까지
2020년 문화비전 선포 계획도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은 문화라는 큰 명제가 주어진 것 같다. 문화라는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불교문화를 어떻게 창달할 것인지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화창달위는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진우 스님을 또한 부위원장은 원명 스님과 변영섭 前문화재청장, 이선민 선임기자가 맡았다.



문화창달위원들이 위촉식 이후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와 함께 문화창달위는 올해 ‘휴먼 라이브러리’와 좌담회, 청년 아트마켓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선정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대중강연 형태로 진행되며, 위원 2명이 40분씩 각각 자신의 전공에 맞춘 불교문화 콘텐츠와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현재 9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강연과 연계해 조계사 마당에서 청년 아트마켓이 열린다.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30여 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어 8월 중 진행될 좌담회는 위원들이 모여 불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위원 1명이 불교문화를 향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1시간 동안 좌담을 이어간다.

문화창달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전개를 위해 분과회의를 마련해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분과회의에서 정리된 안건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거쳐 주요사업으로 선정한다. 문화창달위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한국불교와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문화콘텐츠 방향을 제시하는 2020-2030 문화비전을 선포할 방침이다.

“선학원 분원 약정서가 惡法 변질”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스님 판결
6개월 맞아 회견 “밀실행정 여전”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이 기자회견에서 현 선학원 이사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올 초 이사회에서 분원관리규정을 개정, 분원등록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토록 한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선학원은 “분원 등록 시 똑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내용은 2000년대 들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건주 · 분원장들은 “약정서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7월 18일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이사장의 징역 확정판결 6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월 24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서 결정된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 등록 당시와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 · 분원장 자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일명 ‘재산 뺏기’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선학원이 기관지를 통해 “분원 등록 때 받는 약정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1970~80년대 작성한 약정서와 2009년 작성한 약정서를 공개하며 차이점을 지적했다. 먼저 1980년대 작성된 〈분원재산 명의 변경동의서〉는 별지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유지자원으로 재단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09년 작성된 동의서에는 “분원을 등록 신청하고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이후 형성되는 분원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정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약정서와 달리 2009년 약정서는 “사찰소유의 모든 재산은 창건주, 분원장 또는 대표임원 개인 명의로 보존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동의서와 약정서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한 이사회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 약정서를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징계조항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도량정비를 위해 사찰 인근 토지를 매입해놓고 연계 토지 매입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불사를 하는 풍토를 감안했을 때,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선학원 소속 모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당초 동의서와 약정서는 도량불사를 거쳐 추가된 삼보정재를 재단에 귀속하는 의미여서 문제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를 징계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치명적인 조항을 이사들 몇몇이서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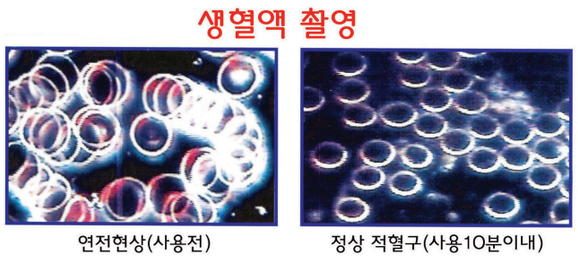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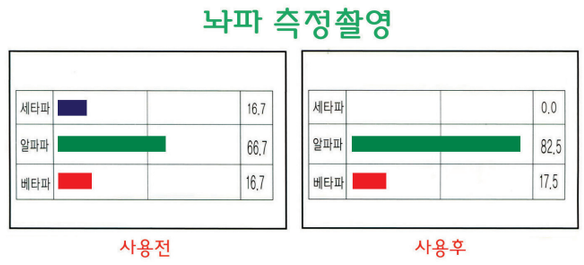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